

순천 웰빙도시락 ‘미인밥상’ 맛 보세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한정식 등 10종 ‘정원박람회’ 기간 저렴한 값에 판매

순천시가 순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순천미인밥상’ 도시락을 개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선보인다. 국제행사 시 관람객들의 가장 큰 불만을 샀던 먹을거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24일 “성인층을 겨냥한 순천 한정식, 웰빙산채보리밥과 청소년일맛에 맞춘 삼선짜구이 등 10종의 웰

빙 도시락으로 구성된 순천미인밥상을 정원박람회 기간 4000원에서 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사전 주문을 받아 도시락을 박람회장까지 배달하고 현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도시락 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는 지난달 24일 서북남 부시장 주재로



순천시가 순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순천미인밥상’ 도시락을 개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선보인다.

는 농특산물을 이용해 도시락 메뉴를 개발, 생태수도 순천의 친환경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까지 가능한 1석3조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음식업체는 반찬 메뉴, 포장 디자인 등 도시락 메뉴를 개발했으며, 대형 푸드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따뜻한 도시락을 현장에서 직접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이 아닌 순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재경향우회원 ‘후원회의 밤’

25일 서울 롯데호텔

순천시는 24일 “오는 25일 저녁 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후원회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조총훈 순천시장, 이종근 (주)부영회장, 김병현 전 대사, 박경서 전 인권대사, 유경덕 법무법인 광장 대표, 이종덕 직전향우회장 등 재경순천향우회원 50여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날 순천 미래 100년을

좌우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사항과 관광객 유치 등 성공개최 지원에 대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조총훈 시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박람회인 정원박람회는 21세기 기본 테마인 자연과 생태가 인간과 어떻게 어우러져야만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 60억대 새조개 채취권 분쟁 타결

평사리 일대 공유수면...채취는 어촌계가, 위판은 잠수기수협으로 합의

여수에서 발생한 60억대 새조개 채취권 분쟁(본보 2월1일자 10면 보도)이 마침내 타결됐다.

여수시는 24일 “지난달 여수시 평사리 일대 해역에서 발생한 마을 어민들과 잠수기수협 ‘공유수면 새조개

채취권 분쟁’이 완전히 타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잠수기수협 회의실에서 평사리 어촌계, 잠수기조합 대표들과 최종 합의를 맺었다.

여수시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은 “이 자리에서 새조개 채취는 어촌계 선박을 동원해 조업하고 채취한 새조개는 전체물량을 잠수기수협에 위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리 마을 인근 공유수면의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자신들의 어업권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에는 어선들 간 대치상황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시가 중재에 나섰고, 공유수면의 새조개 채취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 잠수기 어선의 조업도 합법적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

내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투명하고 효율성 제고

여수시가 내년(2014년) 예산과 관련 편성과정부터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명의 시민으로 주민참

여 예산 연구회를 구성, 다음달 발족할 예정이다. 연구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

를 위해 복지·환경, 관광·문화 등 분야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민회의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강의,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2012년 예산에 비해 34% 증가한 563건 2146억원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489건 1782여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남성해운 컨테이너선 광양항 주 1회씩 기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4일 “국적선사인 남성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스타십 레오호가 이날부터 광양항에 신규로 기항한다”고 밝혔다.

1800TEU급 스타십 레오호는 부산~울산~광양~홍콩~호찌민~방콕 등 동남아 노선을 돌며 광양항에 매주 일요일 기항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108산사 순례기도회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곡성군 오산면 소재 관음사에서 열린 ‘선목 해지스님과 다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제77차 순례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6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가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전국 108개 천년고찰을 매달 순례 기도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관음사에서 열린 ‘선목 해지스님과 다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제77차 순례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6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가했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전국 108개 천년고찰을 매달 순례 기도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곡성군 제공>

전북

한국지엠, 군산공장 신차 생산 중단 양기로

호샤 사장 “크루즈·올란도 생산 주기 연장” 밝혀

군산시 “공동발전 위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를 방문, GM해외사업부문(GMIO) 팀리 사장과 한국지엠 호샤 사장과 의 면담을 실시한 문 시장은 한국지엠의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자 방침과 군산공장에서의 신차 생산 등의 방침을 전해들었다. 이에 문 시장은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샤 사장은 현재 생산 차종 중 J-300, J-200(라세티) 모델이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2014년 까지 연장 생산하기로 했다.

또 크루즈가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판단, 외관 및 엔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차종의 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공장에서 생산 중

인 올란도의 제품의 주기를 연장해 생산하고, 차세대 신제품을 군산에서 생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팀리 사장은 차세대 신제품의 군산공장 생산 방침은 본사에서 승인이 확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동신 시장은 팀리 국제사업과 한국지엠 호샤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산시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시장은 “지난해 크루즈 생산 중단 소식에 시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군산공장의 위기론 속에 지엠의 이번 발표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측은 지난해 준중형차 크루즈의 후속모델인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는 한국지엠 국내 4개 사업장의 생산물량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관계기관 및 정치권에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또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은 서명부(16만6440명)를 한국지엠 본사에 전달해 군산공장 신차생산 제외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군산=박영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월 대보름 ‘오곡밥 나누기’

정월 대보름인 24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을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린 ‘오곡밥 나누기’ 행사에서 한 식사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곡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오곡밥 나누기, 액막이 연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정월 대보름인 24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을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린 ‘오곡밥 나누기’ 행사에서 한 식사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곡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오곡밥 나누기, 액막이 연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정월 대보름인 24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을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린 ‘오곡밥 나누기’ 행사에서 한 식사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곡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오곡밥 나누기, 액막이 연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韓스타일’ 대표 도시 전주 비빔밥 등 소개

NYT, 음식·한옥 극찬

뉴욕타임스(NYT)가 ‘한(韓) 스타일 대표 도시’ 전주의 맛과 전통문화를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NYT 세스 쿠겔(SETH KUGEL) 기자는 20일자 보도에서 체합형 음식으로 전주를 소개했다. 최근 전주에서 숙박하며 접한 다양한 음식과 한옥마을, 전통문화명소, 풍부한 볼거리, 교통편 등을 담았다. 세스 쿠겔 기자는 보도에서 “전주에 가면 배워야 할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콩나물국밥집이 어디 있나요와 감사합니다”라고 소개를 시작했다.

그는 “한식 식도락가들의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다”면서 전주 음식을 대표하는 콩나물국밥과 백반, 비빔밥, 막걸리, 모주 등을 두루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한 전주는 지난해 유네스코 음식 향의도시에 선정됐다고 상기하며 “숙취에 좋은 콩나물국밥을 4.75달러(5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 끝에 “전주에 밀집한 다양한 전통 건물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영어로 된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단신

순창군, 한양대 구리병원과 의료업무협약

순창군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원장 김순길)과 지난 22일 의료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승주 순창군수와 정영근 보건 의료원장, 김재민 한양대구리병원 부원장, 김중래 운영지원국장, 허원화 간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대 구리병원

은 순창군민과 순창 출신 향우에게 외래,입원 환자의 진료비 중 비급여의 20%를 감면해 준다. 또 종합건강검진 등 선별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입원결정 시 병실 우선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한양대 구리병원 임직원 이 군 관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다문화가족 예비학부모 교육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다문화가족 새내기 학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변화하는 교육과정 등을 전달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변화하는 교육과정 등을 전달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주시의회 ‘완주군의회에 통합반대 신중 검토’ 서한

전북 전주시의회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완주군의회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이명연 의장 등이 완주군의회 박용배 의장을 찾아 “전주 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요지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서한문을 통해 “주민의 뜻에 맞고 그 뜻을 존중할 때 통합의 당위성이 실현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며 군의회의 개입보다는 주민의 자율적인 통합분위 조성을 촉구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농기센터, 디지털농업대학 입학식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업리더 양성의 요람 디지털농업대학의 6기생 입학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입학식 후 ‘FTA 파도 속 우리농업 살길 찾자’란 주제로 진행된 한국벤처농업대학 전문인 교수와 첫 강의를 시작한 디지털농업대학은 연말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디지털농업대학은 지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및 마케팅 기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산=박영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